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 796-0267 /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204 street Bronx (718) 563-1209	브롱스한의원(시호) 한의사 박 사나별 각종영양재, 한약, 침(채질력) 전문 908:347-1933, 2303 908:233-0138(H)
흙표 흙침대 장수돌침대☆☆☆☆☆ 뉴저지미전의료기 리지필드한아름소풍물내 Tel. (201)945-9944(B) (201) 527-8040(cp)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Fax (203) 629-9073 각종 보험, 투자	그레이스 여성복 남성복 (과도 회집 옆) (718) 461-5545 (917) 572-1800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s Mija(세살리아) Son (914)310-6990 (cell)	뉴욕정비(자동차) 정우전, 브롱스 2801Webster Ave. (718) 295-3252
통증 증세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 220Pl. 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대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16w 32nd St. #1106 nyc10001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의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 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뉴욕 최초여성공인장례인 (718)224-2390, (888)224-6088	서 봉권 압동 법률 사무소 사고, 상해 전문 (718) 461-3131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게 지 대출까지(주택, 상가 정영오(루가) 사업제) (201)-4619999 (B) (917)232-8890 Cell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회계사 Young&Jullan, LLC 150-05 Nothen Blvd 2Fl Flusing, NY (노던150가) (718) 888-1217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ant 445 Grand Ave PalisadesPark, NJ 07650 Tel: (201)461-4447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Fax) (718)353-8291 144-19 33rd Ave Flusing, NY 11354
브롱스 소풍이탈리아 수제식품 권너편 Food Town 앞, 주차장 완비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718) 329-1678	저이퍼(스테파니)지과 폴립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일몰리스트(치과병원 앞) (718) 426-4343 베이사이드(대중교통) 주차장 (718) 352-8434	리 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 \$40 (세금 포함) (718)205-1200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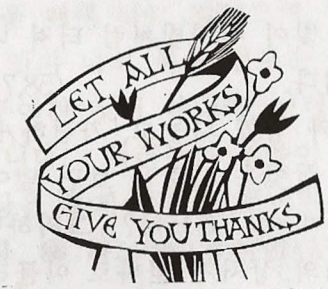
제1648호

2011, 2, 6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오 5,13 - 16)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320-3937 Fax : (718) 405-0053



연중 제5주일

□ 입당송

(시편 95(94),6-7)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대영광송>

□ 제1독서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8,7-10)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9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네가 네 가운데에서 멍에와 샣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 10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흠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12(111),4-5,6-7,8-9(● 4-7))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1.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2.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3.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 제2독서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2,1-5)

1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2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4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요한 8,12)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 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2/ 6 8시	홍 명숙	김 부균	방 경숙	이 경옥
11시	최 일환	김 형남	김 여경	최 금연
2/13 8시	김 미수	박 증복	박 옥희	김 정임
11시	민 경구	엄 정환	추 인숙	윤 정숙

복 사 : 김 현우 & 김 현민 이 중빈 & 김 현건
봉헌자 : 장윤희&최종규 가족 다음주 : 윤구식&김기창 가족
헌금봉사 : 은총의모후 Pr 다음주 : 바다의 별 Pr
운전봉사 : 최 낙범 다음주 : 김 승우

본당 댐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 미사 신청하신 분들

민속잔치에 참석해 주신분들(감사미사) : 대건회원 일동봉헌
감사미사 : 민스테파노[경구] 가족봉헌
한바오로[경수](생미사) ; 함버나드[봉국], 이바오로[재웅]
한에드워드[치남], 김요셉[만석],
이엘리자벳[경옥]가족봉헌
이엘리자벳(생미사) : 이아브라함 봉헌
박모니카, 데레사, 안나, 사라, 이반, 비트리스. 로렌, 맥스로빈,
케리, 엘리자벳(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양리카드로[경식](가정미사) : 이클레멘스[준섭] 가족봉헌
송베데딕토[규섭](생미사) : 이클레멘스[준섭] 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 : 윤토마스[용태] 가족봉헌
김요셉[태기](연미사):김케터린[지은]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조요한[용국]
장알풍소[윤희]가족봉헌
권마리아[체순](연미사) : 조요한[용국] 가족봉헌
조상님(연미사) : 김마태오[창규] 봉헌
김루시아[정자](연미사) : 김요한[동현], 김스텔라 제대회원 일동봉헌

부모님(연미사) : 이아네스[인숙] 봉헌
부모님을 위한(연미사) : 이바오로[재웅] 봉헌
안엘리자벳[경식](연미사) : 이바오로[재웅]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다니엘, 박아네스 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봉헌

성가

입당 :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성가 9)
봉헌 : 미약하온 우리제물 (성가 511)
성체 :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가 414)
열렬하신 주의사랑 (성가 200)
파견 : 주께 찬양 드리세 (성가 14)



교회 소식

(1) 초 축성

오늘 11시 미사중에 초 축성이 있습니다. 축성한 초가 필요한 분은
성물판매부에 부탁 하십시오.

(2) 혼배 갱신식

오늘 미사 강론후 혼배 갱신식이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은총을 다시 생각하고 서로사랑하고 존경합시다.

(3) 찬양의 밤

본당 활성화를 위한 "찬양의 밤"을 2월17일(목) 저녁 8시-10시 까지
본당에서 성령봉사회 찬양팀 을 초청하여 가지며 치유의 예절도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4) 아버지 피정소식

모든 아버지를 위한 피정이 "의로운 아버지" 란 주제로 2월20일(주일) 에
(오전9시-오후5시) 메리놀 신학교 피정의집에서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들의 참석을 바라며 신청은 베드로회장 방문덕 [막시오] (646-831-0312)
형제님이나 사무실 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중고등부 스키 Trip

주일학교에서 2월20일(주일)-21일(월) 에 Ski Trip을 갑니다. 참가비는
본당에서 지원하며 학생부담\$140입니다. 참가신청은 주일학교 선생님
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교구청 기금(Stewardship Appeal 2011)

교구 200주년 기금이 2010년에 끝나고 2011년부터 교구청 기금 (Stewardship Appeal) 이 시작합니다. 교구청 운영기금으로 1개월분 교무금을 더 내시면 됩니다.(직접우송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십시오)

(7) 가톨릭 선교방송 후원회

가톨릭 선교방송 후원회 이 3월4일(금) 오후7시에 대동연회장 에서 있습니다. 초청가수도 있습니다.(회비는\$100입니다)

(8) 본당 모임

- * 동부브롱스 구역회가 오늘(주일) 센타 202호 실에서 있습니다.
 - * 뉴저지 구역회가 다음주 13일(주일) 11시마사후 센타 202호실 에서 있습니다.
 - * 꾸리아 월례회의 가 다음주13일(주일) 11시 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 서부브롱스 및 맨하탄 구역회가 2월20일(주일) 오후5시 함봉국(718-364 -5925)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 성 정마르코 총회가 2월20일(주일) 1시에 친교실 에서 있습니다.
 - * 2010년도 성서 완독자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매일미사책 1년구독료가 \$50 이며 성물부나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 한아름 상품권 을 구입해서 사용(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는 것은 우리집 식탁에 어려운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사무실이나 추바오로[성태] 형제님께 구입하십시오.
 - * 이번달(2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중부 브롱스 구역 입니다.
- 다음달(3월) 은 서부브롱스 및 맨하탄 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126.00
 감사헌금 : \$ 100.00 (익명) 성전수리비 : \$ 500.00 (공연수)
 교무금 : \$ 2,870.00 교육헌금 : \$ 1,910.84

윤용태(1-2)	변대수(1-3)	안길원(1-2)	김창규(1-6)
김관희(2)	박세복(1)	로병건(3)	신흥원(2)
박민흠(1)	추인숙(1-2)	권경순(1-3)	이종금(1)
이영숙(2)	이효순(2)	이철우(2)	윤익수(2)
이중봉(1-2)			

200주년 Campaign :

누계 : \$ 174,008.00

옛날 엄마와 현대 엄마들

수십년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우리형제들 그리고 사촌오빠를 포함해서 대학에서 초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여덟 명이나 있었다. 넉넉지도 못한 살림에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식사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우리들이 학교에 가지고 갈 점심을 부지런히 싸셨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셨는지 신기할 정도이고, 한편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슈포우멘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 집안에 학생이 여덟이나 되고 보니 아침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학비며, 책값이며 하면서 손을 내밀곤 했으니. 나 역시 월사금(그 당시에는 학비를 월사금이라고 했다) 을 제 때에 내지못했었는지 단임 선생님 얼굴은 기억 못하면서도 선생님께서 내일은 꼭 가져와야되 하시던 말씀만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 하다. 한 번은 교과서를 사야되는데 어머니께서 꼭 필요한 교과서만 사라고 하셨다. 그러자 내 바로 아랫동생이 자기는 음악 책을 꼭 사야되겠다고 떼를 썼다. 엄마는 그 음악 책이 꼭 필요한 책인지 선생님께 여쭙어보고 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아버지께 눈물이 글성해가지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 “음악 책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 아이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데 음악 책을 안 사주시다니요. 다른 책은 못 사주셔도 음악 책은 사 주셔야합니다” 하시더라고. 어머니는 그만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엄마가 되어 가지고 자기 딸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 어찌는지도 모르고 살다니...하시면서 한숨을 내쉬셨다. 그토록 많은 아이들을 돌보시노라고 아이의 재능조차 모르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셨지만, 그래도 그 동생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앞에 나가서 독창을 하곤 했다. 그리고 한 음악대학에 무시험 조기입학을 했다. 그 당시에는 무슨 특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특혜가 주어졌었다. 사실 예전에는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한 집안에 아이들을 보통 5-6씩 두고 그렇게 고생들 하시면서 힘겨웁게 아이들을 키우셨다. 근래에 와서 아이를 한 둘 키우면서도 찢찢매는 엄마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정말이지 예전 우리 어머니들, 특히 요즘 할머니 세대로 접어드는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고, 아울러서 자녀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남겼다.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아울러서 나에게 힘이되어주는 그런 값진 추억들을...반면 필요한 것을 돈주고 사면되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엄마에게 어떤 추억을 가지게 될지 궁금하다. 누군가가 현대는 추억을 만들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던데...어머니에게 대한 추억마저 못 만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 몽은